

[찬양과 큐티 12]

“오늘의 힘, 내일의 소망”

김희석 성가사 / 2001 / 페이지 수: 1

얼마 전 내 연약함으로 인해 참 힘들었던 때였다.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땅 바닥을 멍하니 주시하고 있는데 개미가 한 마리 눈에 띄었다. 무언인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다.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개미는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었다.

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 개미와 같은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. 가끔씩 그분을 떠나 있고 싶은 때가 있다.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황할 때도 있다. 그러나 그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미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. 찬양을 하면 할수록,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,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나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.

요사이 나는 나에게서 신실함이 없음을 많이 느낀다.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,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. 이럴 때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찬송이 있다.

“오 신실하신주(447장)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
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
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“

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태도에 관계없이 나를 향해 항상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이다. 이미 오래전부터, 그리고 내가 그분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그 분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.

이 사실을 알기까지 38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기다려주신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.

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, 새벽 날개치며 바다 저 끝에 거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향한 신실함으로 내 삶을 이끌며 오신 그 분이 앞으로도 내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울 것임을 확신한다.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엔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임을 고백한다.

* 출처 : 큐티와 일대일